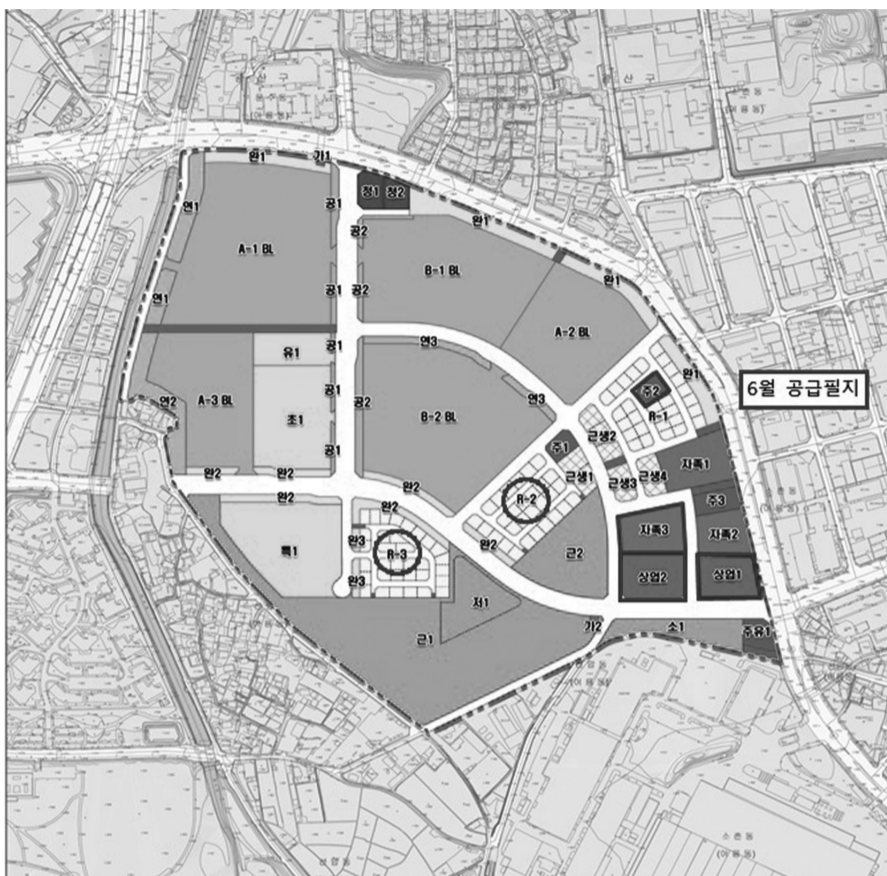


# LH, '선운2지구·빛그린산단' 생활·상업용지 공급

선운2 주거전용 36필지 등 추첨 상업·주차장 용지 무이자 공급 내년 준공... 광주 신흥상권 부각 빛그린 19필지... 미래차 후보지



광주선운2 토지이용계획표.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상업용지와 합평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토지 공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역 신규 상권 조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LH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6필지, 상업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 1필지, 자족시설용지 1필지 등 총 40필지 공급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6필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며, 광주선운2지구에서 단 2필지뿐인 상업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는 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자족시설용지는 지난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일반 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자족 시설, 상업, 주차장 용지는 무이자 분할납부로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했다.

선운2지구는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에 39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

주택지구로, 사업비 3033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월 공사에 착했으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선운1지구, 광주송정역 등과 인접해 향후 광주송정역

KTX역세권 개발 및 공업지역 정비 개발 계획 등으로 광주의 신흥 상권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12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이후 최초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로 인근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69~87평에 평당 약 380~480만원으로 필지당 2억원 후반~4억원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상업1 블록 면적은 4394㎡(1329평), 입찰기준액은 193억원(평당 1455만원)이며 상업2 블록은 4607㎡(1394평), 197억(평당 1415만원)이다. 주차장(주2)은 972㎡(294평), 입찰기준액은 약 12억원(평당 417만원)이고, 자족시설용지(자족3)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4418㎡(1336평), 약 80억원(평당 602만원)이다.

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찰·추첨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찰은 28일 오후 4시30분, 추첨은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낙찰자·당첨자 발표는 같은 날 오후 6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공고에서 유찰된 토지는 30일 오후 4시부터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합평군 월야면 일원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보유토지 19필지도 이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빛그린은 디지털정보대전, 광산업, 첨단부품소재 업종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조

성 중인 407만㎡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로 최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추가 선정되는 등 산업단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필지당 면적 767.8㎡~788.1㎡, 공급 예정금액(입찰기준액) 10억6730만원~11억2700만원으로 대금납부조건은 2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 조건이며 지원시설용지·주유소용지는 필지당 면적 1031.9㎡~2048㎡, 공급 예정금액(입찰기준액) 14억5500만원~26억7400만원으로 대금납부조건은 2~3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 조건이다.

주차장용지는 필지당 면적 2022.3㎡~8226.9㎡, 공급 예정금액(입찰기준액) 12억5390만원~70억7520만원으로 대금납부조건은 3년 균등 분할납부(무이자) 조건이며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는 필지당 면적 299.3㎡~301.2㎡, 공급 예정금액(입찰기준액) 1억6410만원~2억500만원으로 대금납부조건은 2년 균등 분할납부(유이자) 조건이다.

입찰은 오는 27일과 28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대한건설협회 광주·전남 시·도회장 취임

26일 마찬호 전남도회장  
27일 김명기 광주시회장

대한건설협회 광주·전남 시·도회 신임 회장 취임식이 오는 26일과 27일 잇따라 열린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6일 오후 5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4년간 전남도회를 이끌어온 제22대 공후식 회장의 뒤를 이어 제23대 마찬호 회장이 취임한다.

마 신임 회장은 지난 2011년 남양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운영위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도 27일 오후 5시 광주 위더스웨딩홀 5층에서 김명기 제 1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김 회장은 4년 동안 광주지역 종합건설업계를 이끌어간다.

신임 김 회장은 조선대 경영대학원 건



마찬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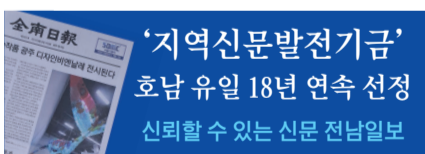


김명기 회장

설경영자 과정과 전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부회장과 운영위원, 대한건설협회 중앙회 기획위원, 대의원, 중소기업위원 등을 지냈다.

또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48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최권범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 광주은행, 지역 취약계층 초등학생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 공부방 개선·돌봄지도 추진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부방 개선 및 초등학생 돌봄지도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매년 광주·전남 10곳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 대학생 고용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학습 돌봄지도 등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장학금 수혜를 받고 방과후 학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했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은행은 ESG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초등학생 돌봄사업 등의 신규 업무가 지역사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꿈

나무'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초 조직개편을 실시 후 ESG공헌부를 출범시켰으며, 핵심 사회공헌사업을 발굴 및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재테크 칼럼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수십 년 전에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매수행위는 투자,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매수행위는 투기로 구분했다.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투자고 단지 땅값 상승만을 노리고 토지를 사면 투기였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편견이 더 심했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은 패가망신하는 도박꾼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주식시장을 놓고 '돈 놓고 돈 먹는다'는 도박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

## 수익과 비례하는 '시간과 노력'

특히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왔던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운에 기대서 일확천금이나 노리는 투기꾼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금융시장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은 수많은 금융맹인을 양산했고 엄청난 부가 고여있는 금융시장을 멀리하게 만들었다.

글로벌 금융시장 규모는 현금, 원자재, 증권, 채권, 코인, 파생상품 등을 합쳐서

2000조 달러(2020년 기준)를 넘어섰다. 전세계 GDP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통적인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 비해 '돈 놓고 돈 먹는다' 시장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전체 금융시장에서도 파생상품(선물, 옵션, ETF 등)의 규모가 7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미 부는 금융시장에 몰려있다. 금융을 알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금융에서도 성실과 근면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그러나 금융을 모르는 성실과 근면이라면 결국 거대 자본가의 소모품 인생으로 살다 갈 가능성이 크다. 실물경제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인 금융시장을 모르거나 경시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이율배반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나방 같은 투기꾼이거나 운에 기대는 도박꾼이라면 세계 제일의 부호 워런 버핏이나 그 밖의 선물 딜러, 외환 딜러, 펀드 매니저

등 수많은 금융 종사자나 투자자들도 모두 도박꾼일 것이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이미 오래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높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일뿐 투기가 아니다. 투기나 도박이라는 용어는 경제나 증권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않고 무작정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쓰는 단어일 뿐이다. 재테크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끈기와 열정을 바쳐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노력은 수익과 비례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